



지난 12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땅볼 타구를 송구하러다 공을 놓치고 있는 KIA 2루수 안치홍. (KIA 타이거즈 제공)

구멍난 내야 불안한 K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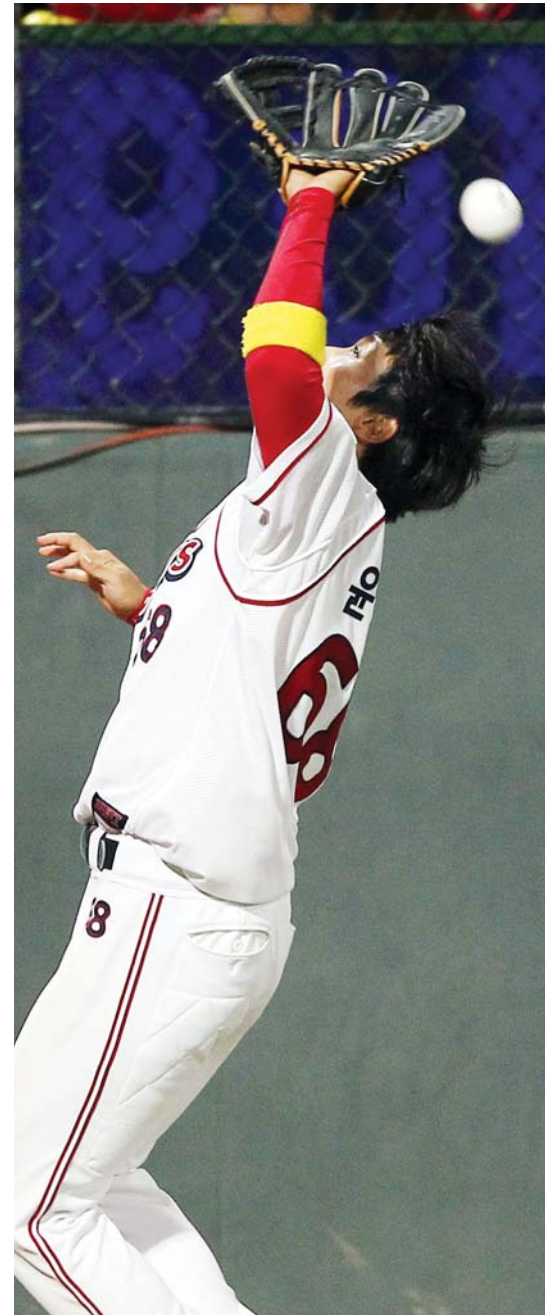
안치홍·김선빈 '키스톤 콤비' 흔들... 3루는 '블랙홀'



실수 연발에 잇단 역전패

KIA 타이거즈는 지난 시즌 8개 구단 중 가장 적은 67개의 실책을 기록하며 견고한 수비를 과시했다. 특히 국가대표 3루수 이범호와 '빅 리거' 최희섭이 버틴 내야는 2루수 골든글러브 수상자 안치홍과 재치 만점의 김선빈으로 구성된 '꼬꼬마 키스톤'의 활약을 더해 투수들의 어깨를 든든하게 해줬다. 하지만 올 시즌 이범호가 빠진 내야는 안치홍의 '트라우마'가 겹치면서 흔들리고 있다. 시즌 첫 경기부터 KIA는 실책에 발목이 잡혔다. SK와의 개막전에서 1회말 1사에서 병살타성 타구를 처리하던 안치홍이 공을 놓치면서 실점의 발미를 제공했다. 안치홍은 이날 5회에도 실책을 기록하면서 어깨가 무거워졌다. 지난해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실책을 기록했던 안치홍은 2011시즌 마지막과 2012시즌 시작을 실책으로 장식하면서 '땅볼 트라우마'에 빠지고 말았다. '핀공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유격수 김선빈도 최근 실수 연발이다. 13일 김선빈은 2-1로 앞선 5회 무사 1루에서 정수빈의 땅볼을 처리하다 2루에 악송구를 했

다. 실책으로 맞은 무사 2·3루에서 투수 심동섭은 김현수에게 2타점 결승타를 얻어 맞았다. 전날 경기에서도 키스톤 콤비는 실책성 플레이로 두산 이원석의 만루홈런의 발판을 마련했다. 1회 김선빈의 악송구에 이어 안치홍이 공을 더듬으면 내야 안타를 만들어주는 등 수비가 흔들리면서 선발 앤서니도 같이 흔들렸고 결과는 이원석의 만루포가 됐다. 이범호의 공백과 함께 박기남·홍재호·윤완주가 투입된 3루도 블랙홀이다. 박기남은 시즌 초반 대수비로 들어간 경기에서 연달아 플레이 타구를 놓치면서 2군으로 추락했다. 계속된 방망이의 침묵으로 위기에 몰렸던 홍재호는 지난 6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8·9회 연속해서 공을 놓치면서 결국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신인 윤완주가 재지있는 타격으로 3루수 자리를 차지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윤완주는 쑥스러운 실책을 기록했다. 1-4로 뒤지던 2회말 1사 2·3루에서 홈에 악송구를 하면서 두 명의 주자가 홈을 밟았다. 선발 김진우의 난조 속에 실책까지 더해지면서 KIA는 이날 3-8로 패를 기록했다. 실수에 대한 부담으로 얼어붙은 수비, 실책으로 인해 투수까지 흔들리는 '실수 악순환'이 KIA의 발목을 잡고 있다. 타선의 상승세로 발등의 급한 불을 끈 KIA가 수비 안정화라는 또 다른 발등의 불을 만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의 신인 윤완주가 3루수로 선발 출전한 지난 13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9회 오재원의 파울타구를 놓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추신수 1번이 '딱'

홈런에 2루타 연일 맹타

1번타자로 변신한 추신수(30·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컨디션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16일(한국시각)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미네소타 트윈스와와의 원정경기에서 통렬한 2루타에 이어 시즌 2호 홈런까지 터뜨리며 방망이를 곧추세웠다. 볼넷까지 한 개 고르며 4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한 추신수는 시즌 타율을 0.236에서 0.245로 끌어올렸다. 전날 짜릿한 결승타점을 올렸던 추신수는 이를 연속 1번타자로 등장했다. 1회 첫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아웃됐으나 1-0으로 앞선 3회에는 좌중간 2루타로 포문을 열었다. 추신수는 파울 4개를 걷어내며 9구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 끝에 득점 찬스를 만들었고 3번 아스트루발 카브레라의 우중간 안타 때 홈을 밟아 득점을 올렸다. 5회에도 선두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미네소타 선발 제이슨 마퀴스의 초구를 베타같이 건어올려 좌측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아치를 그렸다. 지난 5일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11일만에 터진 시즌 2호 홈런. 승기를 잡은 클리블랜드는 5회에 추신수에 이어 카브레라와 카를로스 산타나도 연속타자 홈런을 날려 5-0으로 점수 차를 벌였다. 추신수는 6회에는 볼넷으로 출루했고 9회에는 2루수 땅볼로 아웃됐다. 클리블랜드 선발투수로 나선 노장 데릭 로우(39)는 타선의 지원 속에 9이닝 동안 6안타와 볼넷 4개를 허용했으나 무실점으로 막아 5-0 완봉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광주 출신 백홍석 생애 첫 세계 제패

비씨카드배 바둑... 우승 상금 3억원

백홍석(26) 9단이 생애 처음으로 세계대회 정상에 올랐다. 백홍석은 16일 서울 흥동동 한국기원 1층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회 비씨카드배 월드바둑챔피언십 결승 5번기 제4국에서 중국의 신에 당이페이(18) 4단을 맞아 257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짜릿한 백 반집승을 거뒀다. 1국 패배 뒤 2,3,4국을 내리 이긴 백 9단은 시리즈 전적 3승1패를 기록, 프로 데뷔 이후 첫 세계대회 우승컵과 상금 3억원을 차지했다. 2001년 입단한 백 9단은 신인 시절부터 유

망주로 꼽혔지만 그동안 결승전에서 지독한 불운에 시달렸다. 국내 대회에서 9차례나 준우승만 차지해 '큰 판에 약하다'라는 지적도 받았다. 세계대회 결승에는 처음 오른 백 9단은 이번 대회 제1국에서도 유리한 바둑을 역전패해 '준우승 약동'이 되살아는 듯 했다.



그러나 2국에서 완승을 거둬 자신감을 회복한 백 9단은 좌측의 3연승으로 감격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백 9단은 초반 포석에서 기동대로 두텁게 판을 짰 뒤 중반에 접어들며 하변에 침투한 흑을 공격하며 주도권을 잡았다. 그러나 대마 타계에 성공한 당이페이는 상변에 큰 집을 만들어 승부를 점칠 수 없는 백중세가 이어졌다.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계속됐지만 백 9단은 끝내기에서 정교한 수순으로 이득을 챙겨 극적인 반집승을 거뒀다. 역전패를 당한 중국의 유망주 당이페이는 준우승 상금 1억원을 받았다. /연합뉴스



"어이쿠 깜짝이야" 16일 빛고를 체육관에서 열린 광주·5·18 민중항쟁추모기념 시장기 전국 남·녀 중·고교 태권도대회 남중부 밴텀급 경기에서 장동영(서원중·흥)이 유병국(오정중·청)의 발차기를 피하고 있다. 2000여명의 태권 꿈나무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최철규 세계검도선수권 메달 도전

광주 출신의 최철규(27)가 세계검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최철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이탈리아 노바라에서 열리는 제15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에서 한국대표로 출전한다. 세계검도선수권대회는 3년마다 개최되며 최철규는 지난 대회에서는 개인전 3위와 함께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개



인전·단체전에 출전해 동반 입상을 노린다. 서석중·고를 거쳐 조선대와 북구청에서 선수생활을 한 최철규는 183cm·80kg의 건장한 체격을 갖추고 있으며 집중력이 장점이다. 군복무중인 최철규는 합숙훈련과 전지훈련을 통해 지난 1월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한편 14일 결단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한 한국대표팀은 18일 결전지인 이탈리아로 출국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